

전남서 3년 간 발생 산불 1~3월 집중

최근 3년간 겨울과 초봄 사이인 1~3월 중 전남에서 산불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조한 날씨 속 쓰레기 소각·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잦은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271건 중 112건(41%)이 1~3월에 발생했다.

4~6월에는 73건의 산불이 났다. 7~9월 40건, 10~12월 37건 순이었다.

지난 3년 간 발생한 산불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 발화·확대 가능성 높아 화재원인 90% 이상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또 국제규격 축구장(7140㎡) 114개면에 해당하는 인야 81만7860㎡가 소실돼 9억70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동안 난 산불 271건 중 247건(91.14%)이 '부주의'에 따른 불이었다.

'부주의' 가운데 '쓰레기 소각'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뱃불 46건·논밭 태우기 38건·불씨 방지 19건 순이었다.

그 외 화재 원인은 기계적 요인·기타가 각 2건, 전기적 요인과 방화는 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 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18건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산불 발생이 1~3월에 집중된 원인으로 건조한 날씨를 꼽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해진 겨울철과 이른 봄에는 수분이 빠져 바짝 마른 낙엽과 나무가 '장작'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면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만 날려도 발화되기 쉬우며, 불이 확산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한기에는 지력 회복을 위해 농경지에 불을 지르거나 영농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산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주변 불씨 관리에 주의해달라. 작은 산불이라도 소방관서에 즉각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이후 광양·순천·여수·구례·곡성 등 전남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유지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기아차 취업사기 범인도피 경찰관 불구속기소

광주지검은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된 친구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전남경찰청 소속 A(47) 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1월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사건으로 도피중인 친구 황모(48) 씨의 은신처를 제공하다가 이번 특정 업무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면 서로 황 씨를 추적중인 경찰에 연락이 무질렀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다.

또 도피자금 300만 원과 계좌를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정과 황 씨는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자동차 노조 출신인 황 씨는 각종 감언이설과 함께 취업희망자 29명을 속여 이틀로부터 총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 경정은 현재 작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 녹동항 정박 김운반선 화재

고흥군 녹동항에 정박 중이던 김 운반선에서 3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으나 선원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12시 11분께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항에 정박 중인 김 운반선 S 호(14t)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인 12시 48분께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에 불이 붙자 지나가던 행인이 119 종합상황실을 거쳐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1척과 녹동해경파출소 구조정,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당시 어선에는 선원 등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로 인해 조타실이 전소됐고 기관실 일부도 불에 탔다.

여수해경은 선박 소유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S 호는 지난 1일 선박 수리를 위해 고흥 녹동항에 정박 중이었다. 여수=송기홍 기자

조합장 흥기 들고 농협서 행패...경찰 수사

무안의 한 농협에서 조합장이 흥기를 든 채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30분께 무안군 한 농협 지점에서 조합장 A씨가 지점장 B씨에게 흥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 "과거 법적 분쟁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A씨가 흥기를 들고 위협한 뒤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점 내 CCTV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나주 한 은행서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나주의 한 은행에서 위조된 100달러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52분께 나주시 모 은행 나주지점에서 보관 중인 100달러 지폐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위조지폐가 진짜 화폐와 재질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4일 오후 3시에 은행 본점 외환지원센터에서 나주지점으로 해당 지폐를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에 거절에 술집 주인 흥기 협박 5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흥기를 든 채 술집 주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에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업주 B(58·여)씨에게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흥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오전 9시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차암초등학교 1개동(면적 1만2786㎡)에 3층 15개 학급 교실 증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천안서북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도감사 거부 파문' 나주시 축산악취 관리태만 등 무더기 적발

한때 노조의 전남도 감사 거부로 파문을 일으켰던 나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징계 4건 포함 등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8800만 원의 재산상 조치 등 총 53건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나주시는 매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과 허기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줄어들도록 적정관리를 유도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최근 5년간(2014~2018

년) 대상시설 중 연평균 12.0%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370개 대상시설 중 9%인 119곳만 실시했고, 2015년 13%(1393곳 중 179곳), 2016년 6.1%(1487곳 중 91곳), 2017년 31%(1599곳 중 493곳), 지난해 4%(1725곳 중 74곳) 등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가축사육업 등 허가 처리 업무에 대한 부적절 행정행위도 적발됐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 축산법령에 따른 양도양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에 의한 시설물 취득을 인정해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하고,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닭-돼지)까지 수리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는 500㎡이내에 축사관련시설인 사료공장이 위치해 축산법령상 축산업 허가 제한지역을 '저축사향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축산건축협의를 위반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또 나주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농가에 다시 동일 품목 재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폐업지원금을 요청한 농가가 계속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사후 점검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나주영상테마파크 세입조치 부적절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행사 분할 수의계약 ▲5급 공무원 심사승진 임용 부당 운영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분할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검찰, 필립에셋 대표

·간부 등 12명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대표 엄일석(51)씨와 이 회사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낮은 가격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 여기에 200~250%의 금액을 더해 매도(총 판매 주식 3767억 원)했으며, 이 과정에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만도 66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 유포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 이 같은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에 본사를 둔 필립에셋은 8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됐으며, 단계적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대표의 학력과 경력을 속이거나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가격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원들에게는 매출액의 10~16%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필립에셋 보유 유가증권 등 65억 상당을 추정보전 조치했다.

주춘형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